

WS	A	이
	3-6	외국인노동자

[보도자료]

제목 : 한국인의 국제범죄(한국초청 사기, 해외선원 가혹행위 등)에 대한 고소 고발  
기자회견

일시 : 1995.12.15 (금)

장소 : 중국노동자센터 (798-6356)

주최 :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연락처 (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이호택 859-0430, )

최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중국교포 등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위탁금, 대여금, 노임 등을 횡령하고 추방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동북3성 등 중국교포집단거주지역에 다니면서 한국초청 또는 해외진출한국기업으로의 노무수출 등의 구실로 엄청난 수수료를 사취 잠적하거나, 한국선박에 고용된 중국교포 등 해외선원들에 대하여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를 중심으로 1994년 5월경부터 활동하고 있는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체불임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은 그동안 네팔, 방글라데쉬, 인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활동을 거쳐 1995.8.23 부터 1995.11.13 까지 중국 동북3성 조선족거주지역에서 약 150건의 산재사건과 약 100건의 임금체불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범죄행위를 접수하게 되었음.

#### 가. 한국 초청 또는 한국해외진출기업 노무수출 명목 사기

이번에 고소 고발하는 초청사기관련 사례는 29건이지만 대부분 사례의 피해자가 수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접수되지 못한 사례들도 많아 가히 중국교포사회는 초청사기문제로 민심이 흉흉하고 대한 적대감정이 극에 달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몇몇 사례들의 경우는 사이판, 말레이시아 등 해외진출 한국기업이나 미국 등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음

<사례 38> 피해자 씨 등 100명, 피해금액 1억 1,000 만 여원 (이하 한국돈)

1) 1993.10 경 한국인 씨가 흑룡강성에서 엑스포비자, 연수생비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 매인당 700불, 예약금 200불로 500 명을 모집. 중국교포 가 100여명의 교포를 모집하여 총 45,400,000원 전달하였으나 유씨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구실로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

2) 이로 인하여 임씨가 피해자들에 쫓겨다니는 중이고 그 아들이 중국 공안국에 구속되고

그 아내가 정신적고통으로 사망.

직접피해액 4,500여 만원, 이자 2,700여만원 (월 3%), 비용 800만원, 사망 기타 정신적 손해 3,000 만원, 총 1억 1,000만 여원 손해 발생

<사례 5> 피해자 씨 등 59명, 피해금액 6,550만원

1) 1993.4부터 한국인 씨가 요녕성 단둥, 철령 등에서 노무수출명목으로 매인당 수수료 350,000원을 받고 중국교포 씨를 통하여 59명을 모집하였으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곧 된다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소식을 끊음

2)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진짜로 알고 한국에 갈 준비를 하느라 농사일을 거둬치운 집이 17집이나 되지만 이들은 현재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울며불며 통곡하고 있음. 권씨, 김씨의 재산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법원에 압류당함.

직접피해액 2,950 만원, 이자 약 1,000만원 (월 4%), 비용 약 1,000만원 기타 정신상 피해 등 총 6,550만 여원 손해발생

<사례 36> 피해자 씨 등 30명, 피해금액 3,220 만원

1) 1994년 8월 부터 12월 경에 한국인 씨가 흑룡강성 경안, 철려 등에서 매인당 예약금 30만원 수수료 200만원을 받고 중국교포 씨등 총 30명을 모집하여 총 수수료 약 3,220 만원을 받아간뒤 법무부 사증발급허가서가 미비된 일부 서류를 보내준 뒤 1995년 1월 이후 소식을 끊고 잠적

2) 피해자 등이 사증발급허가서를 요구하자 95년 1월까지 해줄 것이며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도주

<사례 10> 사이판 노무수출사기, 피해자 등 27명

한국인 씨는 1994.3 경 사이판으로 가는 노무자를 모집한다는 구실로 흑룡강성 하얼빈 등에서 매인당 4,400불(약 3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중국교포 등 27명을 모집하였으나 이들이 사이판에 도착하고 보니 취업시켜주겠다던 한국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명회사였음. 이들은 현지에서 유랑하면서 현지 교회 등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

<사례 27> 말레이시아 노무수출사기; 피해자 :연변 조선족주정부 노무수출 담당관 등

한국인 씨는 1994.9-10 경 흑룡강성 해림 길림성 연길 등에서 말레이시아진출 한국기업에 노무자를 송출해준다는 명목으로 1,780만원을 가져가면서 부도난 말레이시아은행 선일자 수표를 교부하거나, 수표발행증서를 수표인양 교부하고 잠적. 피해자 씨 등 순진한 농민들에게는 수표발행증서를 수표인양 교부하였고, 해외노무수출기회를 확대하려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정부 노무수출 담당관 씨(오씨는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에서 파면됨)에게는 부도 수표를 교부하고 잠적하는 등 노골적 사기행각.



11) 휴식시간에 햇도 갑판장이 때리다 끊어진 참대꼬챙이로 외국선원들을 뒤쫓아 다니며 오락삼아 팔을 때림

12) 파도 등 원인으로 네고 애다가 많이 쌓이면 빨리 사리지 않았다고 오후1시부터 밤 9시까지 저녁밥도 먹이지 않고 장장 8시간 동안 로 하여금 애다를 사리게 함 ( 4시부터 9시까지는 루승조가 교대하여 애다를 사리는 것임). 저녁밥 안 먹이고 야식(라면, 빵)을 바다에 던진 회수도 20여회.

13) 주장이 깨울 때는 담배불로 팔을 지지며, 햇도 갑판장한테 귀뺨맞고 몽둥이에 머리를 맞은 것은 하루 세끼 밥 먹듯 하였음.

#### <사례 8> 조양그룹 남북수산 '장수 101호, 303호' 폭력사례

중국선원 씨는 1994년 6월 20일부터 1994년 11월 10일 까지 한국 조양그룹 남북수산 '장수 101호' '장수 303호'에서 일하는 동안 악몽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치를 떨면서 지금도 동료선원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일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당한 만큼의 복수를 한국사람들에게 꼭 갚겠다 함.

1) 승선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하는 척 하던 한국인들이 티니안항구를 떠나자마자 욕설과 주먹으로 변하여 배치된 장수 101호로 옮겨타기까지 25일정도 장수 303호에 있는 동안 매일 욕 먹고 매맞으며 20시간이상 혹사당함

2) 발목이 아파 약먹으러 가겠다고 햇또에게 이야기 했으나 무슨 일이든 중국선원들은 승낙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발목이 잘못될것 같아 침실에 들어가 약을 찾는데 햇또가 따라와 짐승처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참.

3) 중국선원과 한국선원이 같이 갑판에서 일을 하는데 갑판장이 별다른 이유없이 직경 4-5cm 되는 참대나무로 중국선원들만 골라 때리는데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고, 그때 왼팔을 맞았는데 즉시 시커멓게 피멍이 들며 팔두께의 두배로 부어오름. 그때 맞은 왼팔을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음. 왜 사람을 때리는가 항의했으나 갑판장 하는 말이 "너희 중국 사람은 아무리 때리고 욕해도 우리는 한국법에 걸리지 않는다" 며 더욱 혹독히 때림. 이 경과를 선장에게 말하니 선장 하는 말이 "우리들은 일본배에서 더욱 고생했다. 이런일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함.

4) 매일 밥먹는 시간을 10분으로 정하고 8분이나 9분이면 갑판장이나 햇도가 몽둥이를 들고와 중국선원들을 밥도 못먹게 밖으로 내쫓았으며,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잠잘 때는 강제로 커피를 먹여 잠을 못자게 함

5) 25일후 장수 101호에 오른 즉시 선장에게 장수 303호에서 갑판장에게 왼팔을 맞아 힘을 쓸수가 없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배가 없다고 돌려보내주지 않고 갑판장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빨리 하라고 주먹질하며 재촉하다가 팔을 맞아 쓰지 못하면 이번에는 머리를 맞으라며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입에서 피가 나오고 낮은 영망이 됨. 이 때 선장은 브릿지에서 뻔히 내려다보면서도 아무말 하지 않음

6) 11월14일 사모아항에 내려 한국 대리점에 가서 신고하니 증거가 없다하고 중국에 돌아와 김영삼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웠으나 감감무소식임.